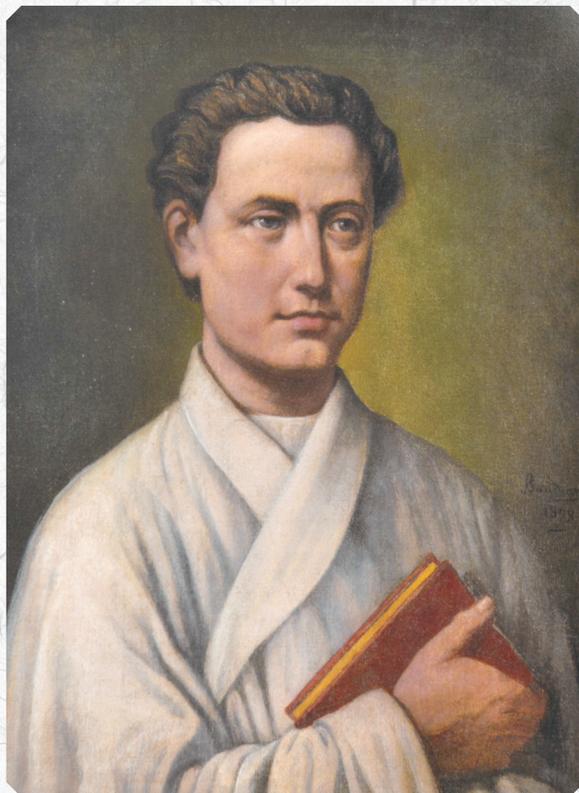


신앙신조들의 열정과 사랑을 이어가는 교구공동체의 해

성 볼리의 루도비코 신부(1840-1866)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백성” 78
(시편 144,15)

‘볼리외’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서 루도비코 신부의 한국명은 서몰레이다. 서 신부는 1840년 프랑스 보르도 교구에서 태어나 1864년에 사제품을 받고, 이듬해에 백, 김, 민 신부와 함께 충청도 대포 지역으로 들어왔다. 그는 고해성사를 줄 만큼 한국말을 배운 뒤 공주 지방의 전교를 맡았지만, 임지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겨를도 없이 박해를 맞았다. 서 신부는 장 주교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경기도 광주 근처의 교우 집에 숨어 있었지만 1866년 2월 27일에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다. 그는 모진 고문을 잘 참아 내었고 여러 질문에도 한국말이 서투르다는 핑계를 대며 대답을 회피하였다. 마침내 그해 3월 7일에 동료 신부들과 함께 새남터에서 참수되니 그의 나이 26세였다.



소장처 _ 파리외방전교회 본원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피에라, 신앙의 꽃)」 성인화 · 약사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4

- 제 1 독 시 옴기 38,1,8-11
- 회 답 송 ◎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제 2 독 시 2코린 5,14-17
- 복 음 환 호 송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 복 음 마르 4,35-41
- 영 성 제 송 주님,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왜 겁을 내느냐?”



박치영
안드레아 신부
흥덕 본당

오늘 복음의 주제는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며 겁을 내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함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좀 더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큰 고통이나 어려움 없이 잘 살다가 죽은 후에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함입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이 잘못된 생각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요한 3,16)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하다’는 말을 상대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의지적 행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많은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자신들이 돌풍으로 인해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께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고 꾸중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질책을 듣고서야 비로소 주님께서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믿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께서 나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심을 깨닫고 체험을 통해 알아가는 과정임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는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에 고통도 죽음도,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는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총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고 영성 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의 성경
한구절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마르 4,40-41)

.....

.....

.....

.....

.....

‘갈릴래아 호수에서 풍랑을 만난 그리스도’,
렘브란트 작

※이번 주일 복음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직접 필사해보세요.

전례를 ‘거행(舉行)’하는 이유와 의미

김형민 안토니오 신부 / 미원 본당 주임

전례를 거행하다 혹은 미사성제를 거행한다는 표현에서 거행(舉行)은 의식이나 행사를 절차에 따라 치를 뜻을 뜻합니다. 이 말은 라틴말 ‘celebrare’(거행하다), ‘celebratio’(거행)를 번역한 말입니다. 이 낱말들은 형용사 ‘celeber’(유명한, 성대한)에서 온 말로, ‘모이다’ 혹은 ‘참석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celebratio’(거행)는 일차적으로 축제나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 모이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말 중에서 (명절 혹은 제사) ‘지내다’라는 단어가 ‘거행하다’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거행’은 축제나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 인간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인간학적 관점은 교회가 전례를 거행하는 신학적 이유와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합니다. 인간은 축제 거행을 통해서 생존을 위한 일상-주로 노동-이 주는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삶의 본질-가족, 친구, 행복, 자유, 신념 등-을 회복하고 누리게 됩니다. 축제는 잠시 이루어지는 일상과의 단절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전례 거행은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실존을 본질적인 것들로 채우는 축제의 시간입니다. 매 주일과 축일에 거행하는 미사성제는 일상에서 벗어나 삶을 하느님의 은총으로 채우고 삶을 회복하는 축제의 장입니다.

또한 인간은 제의(祭儀)나 의식(儀式) 거행을 통해서 함께 모인 이들과 같은 신념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감을 드러냅니다. 동시에 그 신념과 가치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또한 제의를 거행하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과 그 질서를 너머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그 질서를 향합니다. 전례 거행은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가 살아가는 구원의 신비를 드러내고 그 믿음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너희는 나를 기

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루카 22,19)라는 말씀에 따라 파스가 신비를 거행하는 성찬례는 전례 중에서도 교회 생활의 정점이자 원천이 됩니다(전례 현장 10항 참조). 또한 전례 거행 안에서 상징과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감각적이고 이성적인 영역을 초월한 거룩함을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전례 거행은 하느님의 거룩함이 현현(顯現, epiphania)하는 장소요 하느님의 구원이 현재화되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례 거행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이 지나간 사건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여기’에 이루어지는 신비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함께 모인 이들은 그 신비 안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축제나 의식의 거행은 인간이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일치를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존재임을 드러냅니다. 전례 거행은 그리스도의 신비체(神祕體) 곧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인 교회의 행위입니다. 하느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는 각자의 직분과 역할을 행하며 전례를 거행합니다. 이처럼 전례 거행을 통해 구원의 공동체성이 드러나며, 신앙 안에서 서로가 형제자매임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 ‘거행’이라는 표현은 전례에 참여하는 외적이고 감각적이며 사회적인 면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매일, 매 주일 함께 모여 전례를 거행하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 사랑과 자비를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 다른 이들과 형제자매로 한 몸을 이룹니다. 지금 내가 참여하고 있는 이 전례 거행이 하느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장이 되길 기원합니다.

※ 전례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산홍보실 메일(cjjubo@naver.com)로 질문해 주세요.
내용을 선정하여 주보를 통해 답을 드리겠습니다.



계절은 순간처럼 오는가

정상옥 세레나 / 수필가, 교구 가톨릭문인회

봄이 어느덧 왔습니다. 연분홍 치맛자락을 봄바람에 휘날려 볼 째도 없이 허무하게 봄날은 저만치 갔습니다. 부단히도 바쁘게 동동거리다 보니 가는 봄의 뒷자락도 쳐다볼 새 없이 여름을 맞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나간 꽃 피는 봄날이 마냥 좋기만 했을까요. 우리네 인생처럼 가랑비에 젖는가 하면 돌풍에 무너지고 그러다 또 따스한 햇빛에 눈이 부시기도 한 것을.

봄인 듯 여름인가 하다 보면 어느새 유월은 후딱 지나간다네요. 그래서 혹 간은 유월을 일컬어 '미끈유월'이라고도 합니다. 산과 들, 어디를 둘러봐도 너 나 할 것 없이 할 일이 많아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해가 설핏 기울고 땅거미가 어둑어둑 깔릴 때까지 논과 밭 곳곳에서 춘부들의 굵은 등허리를 펴지 못하고 부산한 때도 유월인 듯합니다. 산기슭에 빠꾸기 우짖는 소리가 설새 없이 들려오는 걸 보면 유월도 곧 지나가지만 분명 활력과 에너지가 넘치는 계절이 또 순간처럼 오겠지요.

내 어릴 적 유년의 기억으로는 유월이 참 덥고 나른했습니다. 오리五里나 뒹직한 통학길은 여 나무 살 째 된 천둥벌거숭이들이 타박타박 걷기에는 벽찬 거리였습니다. 유월 피약별이 불등걸같이 달귀 놓은 황톳길로 학교를 오갈 때 뛰다, 건다 지치면 바위 그루터기에 걸터앉아 쉬는 녹시래 고개가 내 고향에 있습니다. 진달래 꽃물로 둘러 산이 붉게 물들던 봄이면 꽃 무덤에서 문둥이가 나타난다는 속설로 어린 마음에 오금을 저리게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땡볕이 내리쬐는 한낮에 높다랗고 험준

한 굽잇길을 걸어 그 고갯마루를 넘나드는 일은 어린 나에겐 여간 고역이 아니어서 등하곳길엔 꼭 한번씩 숨을 고르고 가는 습터이기도 했습니다.

봄부터 유월, 한여름까지 그곳엔 짙레꽃, 아카시아, 갖가지 꽃향기가 흐드러집니다. 하얗게 피어난 짙레꽃 더미 안에서 아직 성한 가시 줄기로 자라지 않은 통통하고 연한 짙레순과 쌀 튀밥 같은 아카시아꽃을 따서 한 움큼씩 입에 넣으며 갈증과 출출함을 때워주던 달 근 한 최고의 주전부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땡볕에 목이 마르고 출출한 허기를 그 녹시래 고개 습터인 자연에서 채워주던 유년 시절 유월의 기억이 아슴아슴합니다.

그 옛날 주전부리 맛을 유추하니 유월이 훌쩍 가버린다 해도 그리 서럽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한 계절이 순간처럼 지나도 아련한 추억으로 뒤안길이 기억 안에 남아 있을 테니까요. 아등바등 바쁘게 살아도 하느님께서 주신 시간의 소중함과 소소하게 누리는 일상의 평화에 감사하겠습니다.

유월을 순우리말로 '누리 달'이라고도 하며 그 말 뜻은 누리는 세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유월은 어느 달보다 낮이 가장 긴 달이기에 밝은 낮을 누릴 수 있어 그런 이름이 붙여졌나 봅니다. 한 계절을 보내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이별과 해후의 갈림길인 유월의 끝자락에서 다시 올 계절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곧 희망이니까요.

제41차 교구 울프레야

교구 꾸르실료 사무국(지도 _ 장병철 바오로 신부)은 6월 6일(목) 가톨릭꽃동네대학교에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창세 12,2)를 주제로 제41차 울프레야를 개최하였다. 미사를 주례한 교구장 김종강 주교는 '꾸르실리스마 실천표 갱신 및 서약에 대한 선서를 받기도 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평신도 체험단, 성직자 롤료, 지구별 장기자랑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약 800여 명의 꾸르실리스마들이 영적 성장과 일치의 시간을 가졌다.



교구 레지오 마리아에 도입 70주년 기념 성모님 본당순례 시작미사

구세주의 모친 레지아(지도 _ 최문석 안드레아 신부)는 6월 8일(토) 교구청에서 교구장 김종강 주교의 주례로 교구 레지오 마리아에 도입 70주년 기념 성모님 본당순례 시작미사를 봉헌하였다. 교구 내 본당을 순례하는 이번 고리기도는 2025년 3월 1일 내덕동 주교좌 성당에서 레지오 마리아에 도입 70주년 감사미사로 마무리된다. 이날 시작 미사에는 교구청 사제들, 구세주의 모친 레지아 산하 꼬미시움 간부들과 첫 순례 성당인 감곡 본당 꾸리아 단장 등 약 30여 명이 참석했다.



본당 설정 60주년 감사 미사 및 견진



내수 성당

내수 본당은 지난 6월 2일(주일) 내수 성당에서 교구장 김종강 주교의 주례로 본당 설정 60주년 감사미사를 봉헌하였다. 이날 미사에는 견진성사와 함께 진행되었으며, 약 410명이 참석하였다.



수동 성당

수동 본당은 지난 6월 9일(주일) 수동 성당에서 교구장 김종강 주교의 주례로 본당 설정 60주년 감사미사를 봉헌하였다. 이날 미사에는 견진성사와 함께 진행되었으며, 약 300명이 참석하였다.

“기쁨과 감사의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구장 동정

■ 중앙탑 성당 봉헌식

일시 _ 6월 28일(금) 오후 2시
장소 _ 중앙탑 성당

■ 교구장 사목방문

일시 _ 6월 30일(주일) 오전 11시
장소 _ 괴산 성당

교구청

요한복음과 함께 하는 음악피정

일시 _ 6.29.토.13:00-17:30
장소 _ 교구청 ※사전신청자에 한해 수강가능
강사 _ 정용진 요셉 신부
문의 _ 210-1737 가정사목국

교리교사 역량강화교육

일시 _ 6.30.주일.09:30-17:00
장소 _ 가톨릭청소년센터
문의 _ 220-1701 청소년사목국

미사·피정

어르신대학 1학기 종강미사

일시 _ 6.25.화.14:00
장소 _ 가톨릭청소년센터

초정성령회관 치유피정

일시 _ 6.29.토.14:00-30.주일.14:00
회비 _ 2만원 ※청소년 무료
강사 _ 김용열 토마스 신부, 김완식 요셉
문의 _ 213-9103, 010-5482-6744

교정사목후원회 및 봉사자 미사

일시 _ 7.4.목.14:00
장소 _ 교정사목센터(충청대로 13)
문의 _ 212-3215 교정사목센터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일시 _ 6.28.금.14:00
장소 _ 수동 성당
문의 _ 02-3673-2525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피정

하느님, 나, 바람(힐링 피정) _ 7.5-7
효소단식 _ 7.11-14, 8.9-12
성경완독 _ 7.26-8.3, 8.23-8.31
문의 _ 010-3340-0201

꽃동네 성소자를 위한 "행복"피정 <나는 행복합니다>

일시 _ 7.6.토.13:00-7.주일.16:00
장소 _ 음성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회비 _ 5만원(1인실/1박 2일)
대상 _ 고 2-35세 미만 젊은이
문의 _ 010-4468-5628 형제회
010-4830-2820 자매회

제주 성이시들 자연순례 피정

여름피정 _ 7.12-14, 7.20-22, 7.25-28
8.1-4, 8.6-8, 8.10-13
자연순례 _ 9.2-4, 9.7-9, 9.21-23
운영 _ 성 이시들 피정의 집
내용 _ 이시들 목장내 성지에서 쉽고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접수 _ 064-796-4182, 02-773-1455

교육·모집

청년성서모임 제38차 탈출기연수봉사자 모집

자격 _ 탈출기연수 수료자
신청 _ cafe.daum.net/cjibible에서
신청서 작성 후 메일 발송
신청기간 _ 6.24.월-7.12.금
연수일시 _ 10.3.목-6.주일
발대미사 _ 7.16.화.20:00
문의 _ 220-1707, 1703 청소년사목국

제1회 교구 생태영성 탄소중립 아카데미

일시 _ 7.6.토.13:00-17:30
장소 _ 교구 연수원
회비 _ 없음 ※누구나 참석 가능
주관 _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문의 _ 010-2608-5746 평협회장
010-3431-8588 사무국차장

수지애니어그램 : "나와 타인을 이해하는 뜻깊은 여정"

일시 _ 7.20.토.10:00-17:00(점심 제공)
장소 _ 가톨릭청소년센터
대상 _ 자신과 타인을 깊게 이해하고 싶은 분
(중학생 이상, 가족/그룹 참여 가능)
회비 _ 개인 6만원 ※선착순 8명
접수 _ 220-1730 ※화-토 상담 가능

제2회 가톨릭 대안 좋은 학교 연수

일시 _ 7.20.토-21.주일
장소 _ 양업고등학교
대상 _ '좋은(Quality) 교육'에 관심있는 분
회비 _ 8만원 ※www.yangeob.hs.kr
접수 _ 7.9.화.10:00부터(홈페이지)
문의 _ 260-5076 ※선착순 접수

청주빈첸시오간병회 간병사 모집

자격 _ 요양보호사자격증 소지 신자/예비자
문의 _ 010-3132-7820 성빈첸시오아바오로회

성심노인요양원 주간요양보호사 모집

문의 _ 214-8501 ※09:00-18:00 근무

은혜의 집 조리원 모집

문의 _ 269-2606 ※노인요양시설

소화잘되는내과

건강검진, 위·대장 내시경, 소화기내시경전문의 2인 진료
태양빌딩 2층(가정동 홀플러스와 모태안산부인과 사이)

원장 이승호 바오로 이희승 | **716-2885**

보은 대추먹은 흑염소한마리

흑염소 분양, 흑염소 고기, 흑염소 엑기스
보은 황토 생대추, 건대추

김지환 요한 | **010-5833-6541**

숙성새우젓·각종 발효액젓·신안탈수햇소금

[강경늘불젓갈] 총구역 기금 마련 상담환영/각종 새우젓
명란젓, 낙지젓, 오징어젓, 토하젓, 멍게젓, 친환경 우렁

대표 김형근 루카 | 신안탈수햇소금 20kg
010-7722-7711 | 택배비 포함 4만 8천원

벨톤 보청기 충주지사

청각복지카드 소유자 (무료 출장, 상담)
10만원대 구입 가능

원장 주영호 요셉 | **010-8335-0516** | **857-9494**

성모치과의원(충주)

임플란트, 틀니, 치아교정, 보철치료
통합 치의학 전문의 진료

치의학 박사 안성준 야고보 | **851-7528**
치의학 박사 지정현 | 중소기업은행 앞

백합훈수방, 백합한복대여

40년 전통 한복 디자이너 대상
24년 선물 증정 감사 이벤트

김하철 안드레아 | **222-9922**
김은정 에피파나 | 중앙공원 맞은편 한복거리

9기 나무조각(성화, 성물제작) 회원모집
 일시 _ 월요일(오후/밤), 수요일(오후)
 장소 _ 대전 목동 '거룩한 말씀 수녀원 교육관'
 문의 _ 010-3253-9349 한국가톨릭목공예회

안내·기타

가톨릭청소년센터 고해성사(14:00부터)
 일시 _ 6.24, 월, 7.8(평신도)
 7.1, 월, 7.15(성직자/수도자)
 집전 _ 안구열 신부(메리놀외방전교회)

가톨릭대학생연합회 봉사활동

일시 _ 6.26, 수-28, 금
 장소 _ 명예목 성지

놀체인 양업 이수한 신부 취임식

일시 _ 6.29, 토, 15:00
 장소 _ 놀체인양업(청주시 상당구 이정골로 67)
 일정 _ 미사, 이·취임식, 축하연
 문의 _ 296-5004 사무국

한티 가는 길(성지순례길)

일시 _ 9.25-27, 11.25-27
 장소 _ 왜관베네딕도수도원 문화여성센터
 회비 _ 15만원 ※2박 3일 일정
 문의 _ 010-6791-0071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내용 _ 국내입양상담
 문의 _ 02-764-4741~3, www.holyfcac.or.kr

제1회 교구 신앙체험수기공모전

형식 _ 산문(수필) A4 3-4장
 마감 _ 7.28, 주일/발표 _ 9.13, 금
 접수 _ cyh0279@hanmail.net
 문의 _ 010-9406-0202 ※www.cdcj.or.kr

6월 가족이 함께 드리는 기도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교구 홈페이지 '가정기도' 게시판 열람가능



중앙탑 성당 봉헌식



중앙탑 본당(주임 _ 김한수 시몬 신부)은 6월 28일(금) 오후 2시 교구장 김종강 주교의 주례로 '중앙탑 성당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하느님께 받아주십사 들어올리는 이 거룩한 자리에 많은 분들의 기도와 축하를 머릿속이 청하며 초대합니다.

신간 안내



그지없이 크오셔라

김남오 신부님이 교구 후보에 연재했던 사진묵상집이 책으로 발행되었습니다.

- 구입 _ 청주/성바오로 서원(수동성당 옆) 충주/루카서원(교현동 성당 교육관) 기타/010-7688-8367로 주소 문자전송시 택배발송
- 가격 _ 1만 2천원(택배발송시 1만 5천원)

청주주보 광고란 이용을 원하는 업체는 교구청 전산홍보실(☎210-17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뒷목문화사 Tel : 273-5000~2, E-mail : dewmok@naver.com 인쇄 · 출판 · 광고, 성경필사용지 제작 · 판매

맘스토리 산후도우미 센터

정부지원 바우처 등록기관
 산모 · 신생아 돌봄, 산후관리사 상시 모집
 대표 지순의 아네스 | **010-9235-7786**

청주탑엔도내과

당뇨, 골다공증, 갑상선 질환, 고지혈증, 고혈압, 내분비질환
 당일 검사 및 진료 가능/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굿샘빌딩 5층)
 고선희 미카엘라 홍의실 로 사 | **715-7572**

라파엘 가을특선 성지순례안내

9/11 추석특선 알프스와 중세 수도원(545만원)
 10/13 성모님 3대 발현지 13일(485만원)
 대표 유재구 요한 | **02-778-8565**
 www.clubraphael.co.kr

온유한 정신건강의학과의원 + 낮병원

임상심리사 7명, 심리상담, 당일 종합심리검사
 일반보험가(30%), 보호1,2종차상위(0%)
 전문의 최영락 경원프란치스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성경, 선자연 | **234-2462, 8**

민 안과 의원

라식 · 라섹수술, 20년, 김원장라섹 백내장, 쌍꺼풀, 특화수술 · 각종특수검사
 원장 김병석(베드로) 원장 김소연(테레사) | **222-8080**
 지하상가 중간 신호등 북쪽

제주도 관광

제주교구 운전기사사도회에서 관광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064-758-6476, 010-4566-6476